

투데이 칼럼

교통이 끊기면 삶도 끊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교통권을 반드시 명시해야

전 북의 동계면 시골 마을. 83세 이모씨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을 나선다. 오늘은 병원 진료를 받는 날이다. 터미널까지 걸어가기만 한다. 가파른 언덕을 넘고 굽은 하리를 겨우 일으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도, 버스를 놓치면 두 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 배차간격이 두 시간이 넘기 때문이다.

봄바람은 쌀쌀하고 의자는 차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버텨야 한다.

그 버스는 하루 다섯 번 운행한다. 남원행 9시 40분. 그다음은 12시 40분이다. 동계에서 순창과 오수는 그레도 1시간 간격이지만, 전주행 직행버스는 하루 한 대. 버스를 놓치면 병원에도, 시골 장에도 갈 수가 없다.

비단 이씨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농촌에는 '차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운전이 어려운 이들이다. 면허가 있어도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어 자가용을 포기했다. 이들은 오직 대중교통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러나 그 대중교통조차 줄어들고 있다. 적자라는 이유다. 지난 3년간 50%나 줄어들었다는 동계 버스 터미널 이정길 관리소장의 하소연이다.

군내버스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노선은 축소되고, 배차는 줄고 있다. 택시는 부르면 오지 않는다. 오히려 기본

요금에 부담된다. 대중교통은 '그림의 떡'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교통은 단순히 여단가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먹고 살려면 장을 봐야 하며, 외로움을 달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 모든 일상의 시작이 교통이다. 교통이 없으면 모든 일상이 정지된다. 삶은 집 안에 갇히고, 관계는 끊기며, 외로움과 우울이 깊어진다. 결국 건강마저 위협받는다.

이동할 수 없는 삶은 더 이상 살아 부를 수 없다.

고령화는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국민의 18.4%가 65세 이상이며, 2023년에는 20.6%로 올라설 전망이다. 다섯 사람 중 하나가 노인이 되는 시대다.

특히 농촌은 더 심각하다. 고령군의 경우 고령화율이 38.2%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통은 복지이자 의료이며, 무엇보다 생존권이다. 그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러나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교통권'이라는 단어가 없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버스를 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반면 외국은 다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통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81조는 "연방은 국민이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단순한 교통 서비스라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필수 권리로 본 것이다.

브라질은 2015년 헌법을 개정해, 연방헌법 제6조에 교통을 교육·보건·주거와 함께 기본 사회권으로 포함시켰다.

독일 역시 기본법에서 교통을 명시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을 공공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교통이 없으면 국민

의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하고, 교통정책을 '복지'가 아닌 '권리'로 접근한다.

우리는 어떤가? 아직도 교통은 '선심성 정책'으로 여겨진다. 농촌에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는 일은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만 고려된다. 노인을 위한 무상 교통정책도 정치적 이슈가 되어야만 잠깐 주목을 받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헌법이 답할 때다. 교통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해야 한다. 그레아만 국가와 지자체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법이 명확해야 정책이 움직이고, 예산이 따르고 제도가 생긴다.

교통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일은 단순한 문구 삽입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연약한 이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시골 어귀의 정류장까지 헌법이 닿게 하겠다는 다짐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장을 보러 나갈 수 있으며, 손주의 얼굴을 보러 자유롭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살만한 나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모 할머니가 오늘도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헌법은 응답해야 한다.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이때 교통권을 헌법에 담는 일은 바로 지금 이때다.

사설

명경 최영숙 네 번째 서각 개인전

명경(茗景) 최영숙(崔英淑) 네 번째 개인전 '이슬이 이슬을 비추다'가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차오름실에서 열렸다. 이번 개인전에는 햇불, 봉(鳳), 황(凰), 다반향초, 이슬이 이슬을 비추다, 민들레 흠씨 되어, 하늘 물고기, 부귀유여(富貴驕兒), 물거품, 서로 비추다, 행복한 물고기, 황금 물고기, 바람이 되어, 풀꽃 향기 가득한 우리집, 산 구름 달, 호기심, 덕불고, 설레임, 고독에 핀꽃, 주목 꽃파다, 여럿이 함께, 나 있어 너 웃고, 너 있어 나 빛난다 등 모두 60여점이 전시됐다.

작가는 "계달은 사람은 말이 없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삶, 나무에 벌레들이 만든 꽃길 흰 빛 찾는 나, 각으로 새기다. 지금도 모든 것이 공명하다. 영롱한 아침 이슬 햇님 나오면 어디로 숨는 걸까? 이슬이 나를 비추는 데...이슬 따라 갈

나, 발자국 남겨 본다."고 말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앞서 지난 2023년 8월 전북예술회관에서 '호를 따르다'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어 모두 60여점을 전시했다. 2024년 4월에는 전주 교통미술관에서 '하늘 물고기'란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서각(書刻)은 문자를 조형화해 나무와 돌, 금속 등의 재료에 새김질하는 작업이다. 칼자국이 작품의 질감을 한층 더 높여준다. 다양한 편도 칼과 끌의 무수한 새김질의 예술이다.

작가는 한국문인협회 민조시인, 대한민국공예대상 초대작가(민화),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초대작가, 한국서각협회 회원, 함안서각협회 회원이다. 전주 한옥마을 향교길에서 아트샵 '하늘 물고기'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연합 청년지도자 총회

최근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청년지도자 총회가 개최됐다.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62개국에서 온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청년지도자들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전

원공 천일성전 입국 승리를 기념해 글로벌 청년지도자들이 참여한 '천일국 탐전 수련'을 지난 14일부터 10일간 경기도 가평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천일국 청년지도자 총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출발했다. 62개 국가의 청년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개회식에는 대륙별 6팀이 공연을 펼쳐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는 다양한 문화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정

체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늘 아래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전 세계의 형제자매를 만나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인류의 평화를 논의하는 이 자리가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련에서는 동시통역과 번역 자료를 제공하며 한인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 참부모님

론 특별교육, 철야정성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미래 리더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훈련의 장'이 되도록 했다. 가정연합 창립 71주년을 맞는 올해,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나가기 위해 전 세계 청년지도자들이 하나의 심정으로 정렬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통일교 국제합동축복결혼식에는 90개국 5000쌍 축복결혼식과 함께 전 세계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기후 위기로부터 동물을 구해 주세요”



27일(현지 시간) 세네갈 디카르 밀리부 해변에서 인형극 조종자(Puppeteer)들이 이동식 공연 프로젝트 '더 허즈(The Herds)'의 일환으로 판지로 만든 동물 인형을 조종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된 이 공연은 칸사사(민주콩고)에서 시작해 나이지리아, 세네갈, 모로코, 프랑스 등을 거쳐 오는 8월 노르웨이 북극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리그 우승 환호하는 리버풀 팬들



리버풀 팬들이 27일(현지 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4-25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토트넘 홉스퍼와의 경기에서 승리해 리그 우승을 확정 후 환호하고 있다. 리버풀은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에 5-1로 승리하고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